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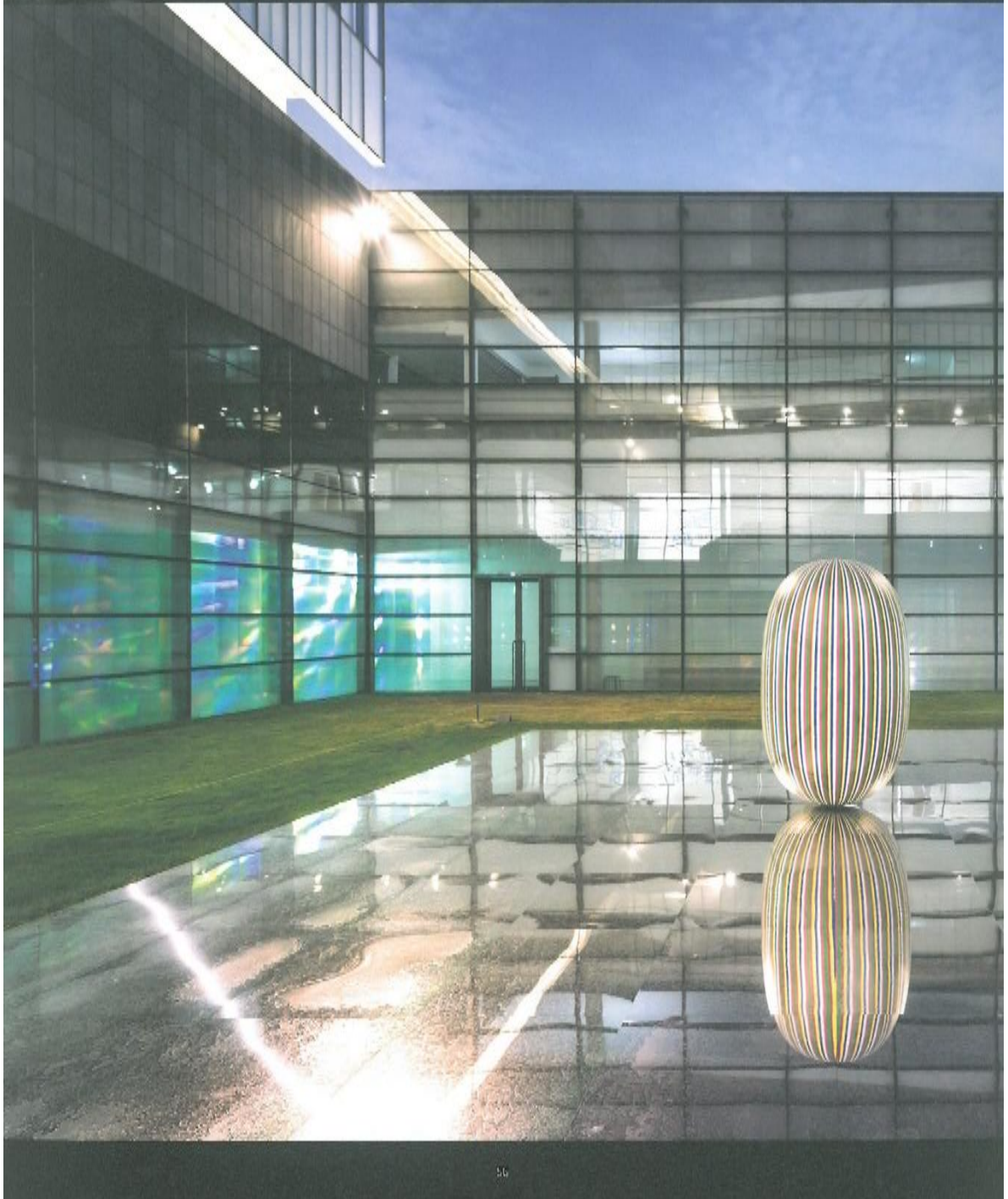
ARCHIVE OF MIND

September, 2016 | WANG MINAH

Page 1 of 6

ART

EDITOR WANG MINAH COOPERATION MMC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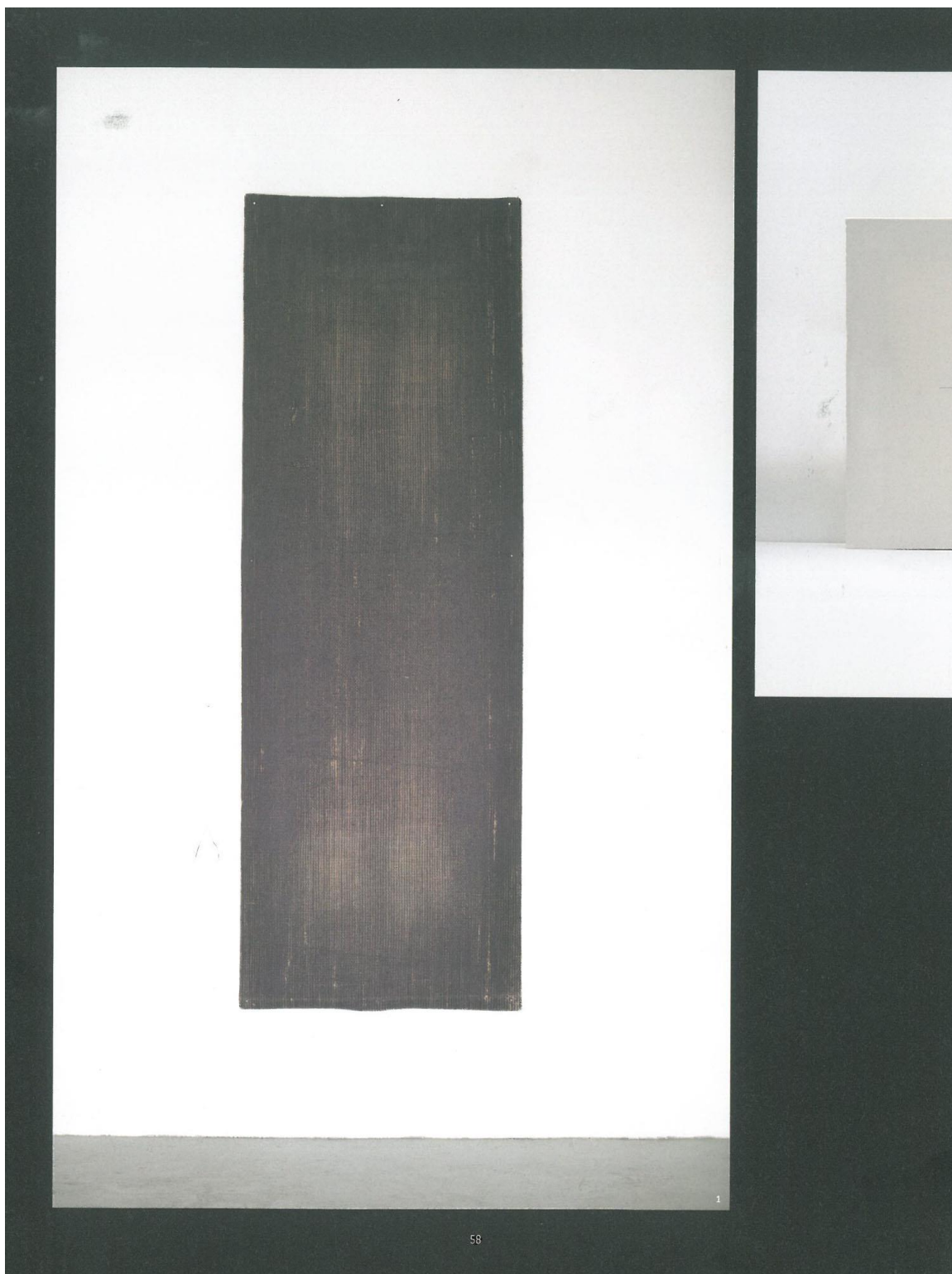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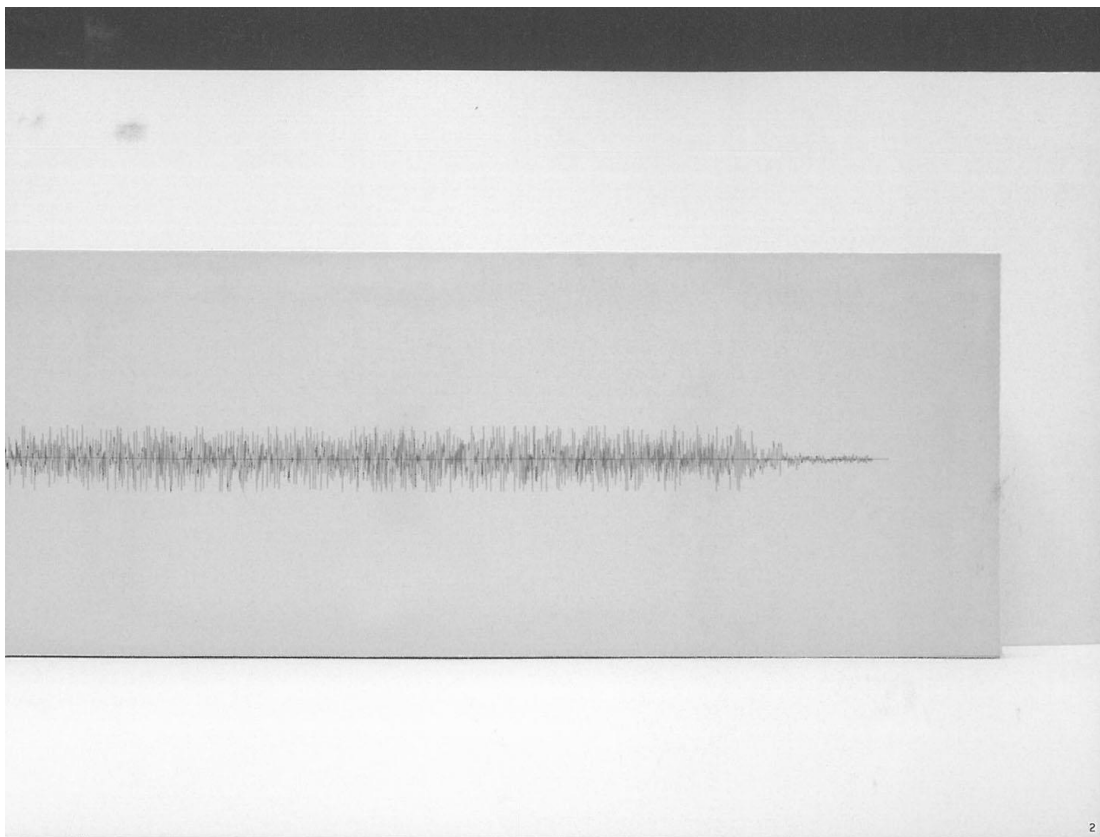


ARCHIVE OF MIND

국립현대미술관
현대차 시리즈 2016: 김수자
국립현대미술관과 현대자동차가
함께 펼치는 '현대차 시리즈'의
세 번째 장이 열렸다. 이번에는
자아와 타자에 대해 고민하는
김수자의 <마음의 기하학>이다.

한국 아티스트를 세계에 보여준다는 건, 한국의 재료로 모두의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거다. 김수자는 인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국적 소재와 정서를 표현한다. 그렇게 지난 30년간 회화와 일상의 사물이라는 현대미술의 창작 방식에 관한 이슈, 행위나 이민, 망명 같은 사회적 이슈를 모두 탐구해왔다. 그것이 이번 시리즈에서 김수자를 선택한 이유다. 그는 소리, 빛, 이불보 등을 이용한 장소 특정적 설치, 퍼포먼스, 비디오, 사진과 같은 작업을 통해 자아와 타자에 대한 주제를 탐구한다. 자아에 대한 자각을 드러내고 일깨우는 거울과 바늘의 응시를 통해 인간의 조건에 대한 질문을 탐구하고, 우리 시대의 정치나 환경과 같은 사회적 이슈를 소리 없이 파고든다. 이런 작품세계를 아우르는 대형 설치 작업과 사운드, 영상, 퍼포먼스, 조각 등의 그의 작업물은 동시대 미술의 새로운 모델과 형태를 제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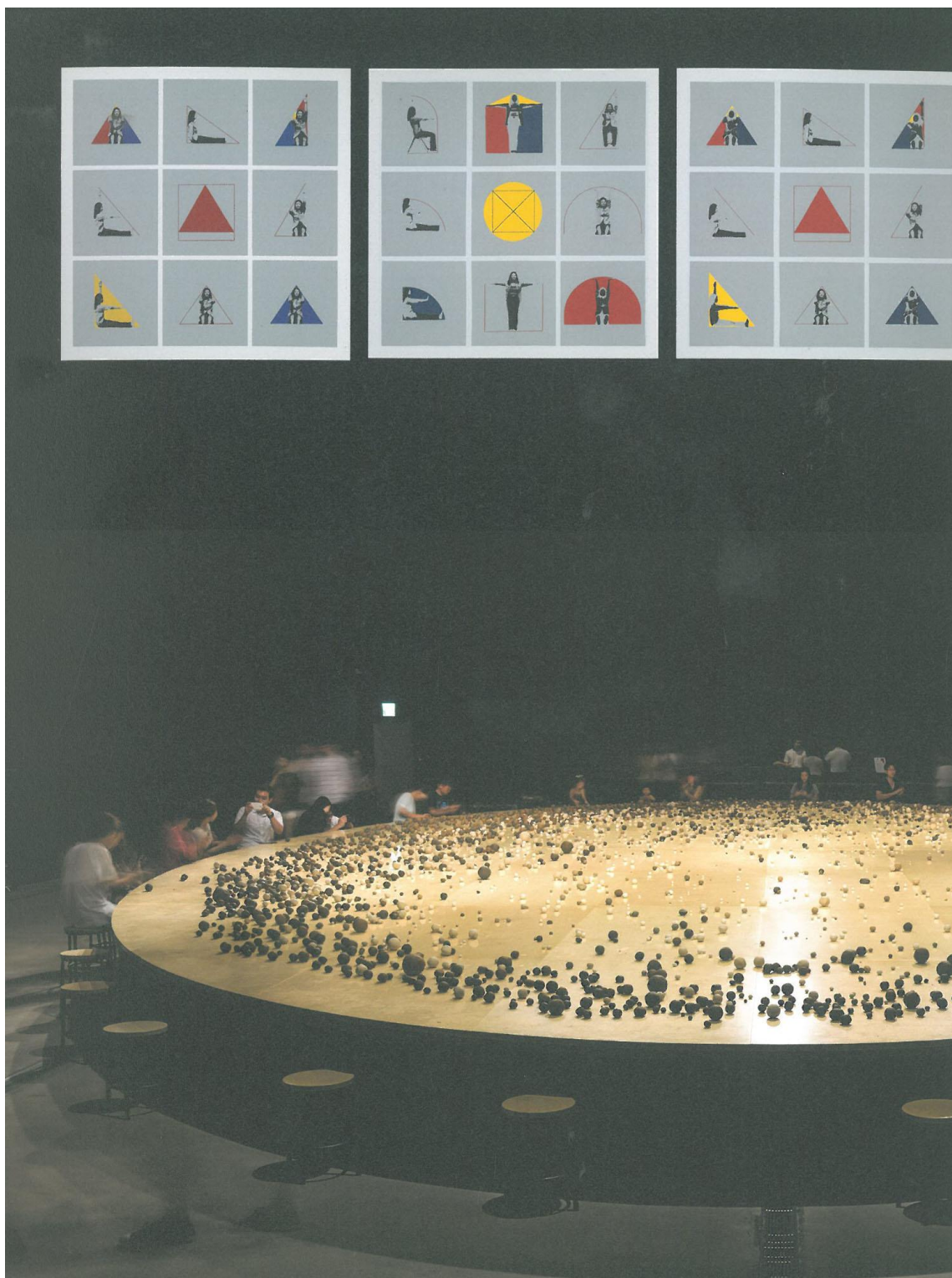




2

1
몸의 기하학
Geometry of Body, 2006-2015
 2006년부터 작가가 사용했던
 요기 매트료, 작가의 손과 발이
 닿은 흔적으로 이루어진 작품이다.
 요기를 하는 동안 작가의 신체적
 움직임과 중력을 비가시적인
 차원으로 담아낸 것이다. 이 요기
 매트는 작가의 회화 작업에서 보여준
 신체성에 관한 지속적인 관심을
 드러내고, 몸의 흔적으로 나타내는
 새로운 개념의 회화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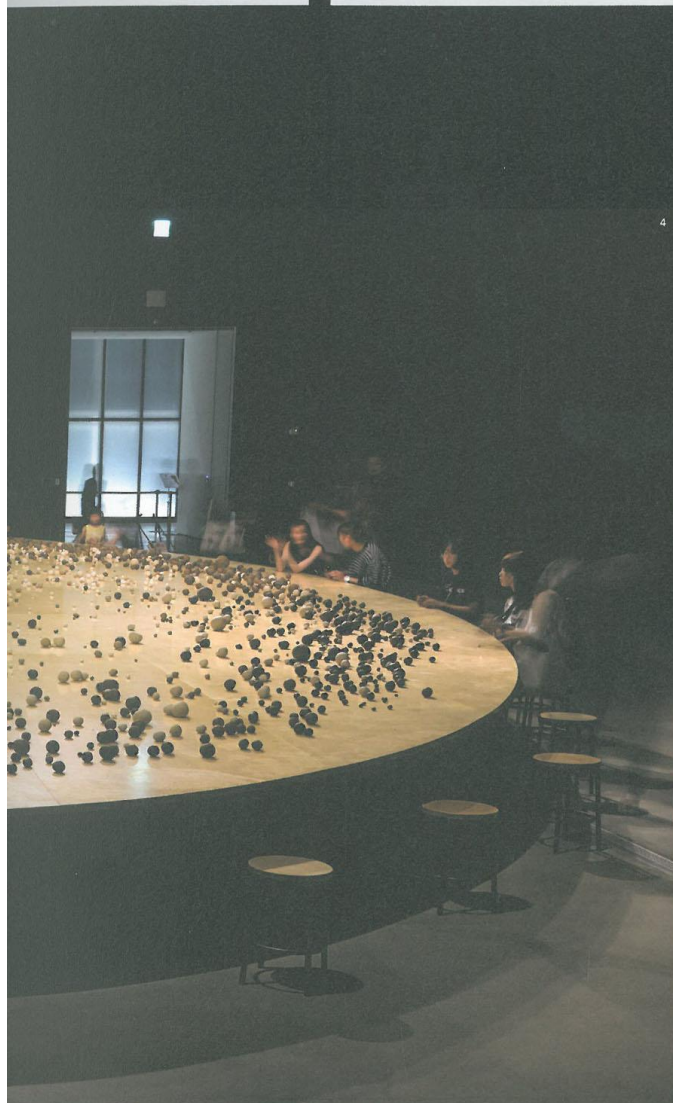
2
숨
One Breath, 2004/2016
 작가가 바느질을 중단한 1992년
 이후 처음으로 제작한 디지털 자수
 작품. 호흡 사운드 퍼포먼스 <직물
 공장(The Weaving Factory),
 2004>의 음과 그래픽의 안 숨을
 디지털 자수로 수놓은 것이다.
 들숨과 날숨이 만들어내는 파동은
 직물 사이를 누비는 바느질을 통해
 그 구조와 형식을 보여주고 음과
 양, 삶과 죽음의 순환을 시각적으로
 영상화한다.





국립현대미술관 현대저 시리즈 2016
 김수자 - 마음의 기하학
 전시 기간 2016. 7. 27 - 2017. 2. 5
 장소 서울관 5전시실 및 전시마당

3



4

3
 몸의 연구

A Study on Body, 1981

1980년대 초에 신체, 평면 그리고 공간의 역학 구조에 대한 실험으로 작가의 퍼포먼스를 실크스크린으로 제작한 것이다. 이 작품은 역사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연관되어온 작가의 지난 프로젝트들에 드러난 세계의 수직적 구조와 수평적 구조에 개념적 기반을 두고 있다.

4
 마음의 기하학

Archive of Mind, 2016

이번 전시를 통해 처음으로 선보이는 이 대형 설치 작품은 무인기를 만드는 광위 자체에 얽힌 규범적인 문제에 관해 작가가 사유한 바를 제시한다. 관람객이 직접 작품에 개입하는 참여형 워크숍으로 진행된다. 작가는 캔버스의 기둥을 감하는 19m 길이의 타원형 나무탁자 위에 관람객이 천룡 덩어리를 구(球)점으로 만들어놓도록 요청한다. 그리고 함께 전시되는 시운드 퍼포먼스 신작 <구의 개직(Unfolding Sphere, 2016)>은 구형의 질서가 갖고 있는 표면의 기하학적 구조를 소리의 신타래로 풀어내며, 탁자 위에 놓여져 있는 구형들과 만나 우주적 조형성을 보여준다.